

#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안 유 경\*

- I. 서론
- II. 만구 이종기의 사단칠정론
  - 1. 사단과 칠정은 모두 理發이다.
  - 2. 율곡의 ‘氣發一途’에 대한 비판
- III.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 1. 사단과 칠정은 經緯의 관계이다.
  - 2. 사단과 칠정은 모두 理發이다.
  - 3. 형기의 칠정은 氣發이다.
- I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20세기에 활동한 晩求(李種杞, 1837~1902)와 俛宇(郭鍾錫, 1864~1919)의 사단칠정론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두 사람의 이론적 차이를 밝힌 것이다.

19세기 퇴계학파는 지역적 학문적 특성에 따라 기존의 학파적 계보를 바탕으로 분파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동권의 정재를 중심으로 하는 정재학과와 성주의 한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주학파이다. 만구는 정재를 계승하고 면우는 한주를 계승한다.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ykan2008@hanmail.net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재의 학문을 계승한 만구와 한주의 학문을 계승한 면우의 사단칠정론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이론적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적 차이는 결국 19세기 대표적인 퇴계학파인 정재학과와 한주학파의 해석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19세기 분화된 퇴계학파에서 어떻게 전개변용되었는지 그 전개양상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성리학의 주요쟁점으로는 ‘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 심설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에 대한 해석이 심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아울러 살펴본다.

◆ 주제어

---

만구(이종기), 면우(곽중석), 사단칠정론, 이발, 기발

## I. 서론

본 논문은 19~20세기에 활동한 晩求(李種杞, 1837~1902)와 侁宇(郭鍾錫, 1864~1919)의 사단칠정론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두 사람의 이론적 차이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장태는 19세기 퇴계학과를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한다. “19세기에 활동하던 퇴계학과 성리학자들의 한 갈래는 퇴계의 정통학맥을 계승한 안동권의 정재(유치명)와 그의 문인 서산(김홍락)의 흐름이요, 다른 한 갈래는 정재의 문인이지만 리 철학의 입장을 강화하여 心卽理설을 제기한 성주의 한주(이진상)와 그의 문인 면우(곽종석)의 흐름이다.”<sup>1)</sup> 즉 한말 이래로 퇴계학과는 지역적 학문적 특성에 따라 기존의 학파적 계보를 바탕으로 분파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동권의 정재를 중심으로 하는 정재학과와 성주의 한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주학과라는 것이다.<sup>2)</sup> 이들 분파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정재학파는 心合理氣를 주장하고 한주학파는 心卽理를 주장한다. 따라서 만구는 정재의 心合理氣를 계승하고 면우는 한주의 心卽理를 계승한다.

면우와 한주의 관계, 즉 면우가 한주의 문인으로서 한주의 학문을 철저히 계승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구와 정재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므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하겸진은 『동유학안』에서 만구를 정재문인 중의 주류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서산(김홍락)·한주·만구는 모두 정재의 문인이다.……정재가 大坪에서 살았는데 서산과 만구가 그의 주류가 되었으니 이를 坪學이라 부르고, 한주가

1) 금장태, 『퇴계철학과 理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25

2) 임종진은 정재학과와 한주학과 이외에도 사미현(장복추)을 연원으로 하는 사미현학과와 성재(허전)를 연원으로 하는 성재학과 등으로 분파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임종진, 「만구 이종기의 삶과 사상적 특징」, 『남명학연구』31,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1, p.121

大浦에서 살았는데 후산(허유)·교우(윤주하)·면우(곽종석)·회당(장석영)이 그의 주류가 되었으니 이를 浦學이라 부른다. 이것은 남당(한원진)과 외암(이간)이 수암(권상하)에게서 함께 나왔지만 호론과 낙론으로 나누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호론은 수암에게 인정받았고, 서산과 만구 또한 정재에게 인정받았다.<sup>3)</sup>

이것은 수암의 문하에서 남당과 외암의 분파가 있었으나 수암의 인정을 받은 것이 남당이듯이, 서산·한주·만구가 모두 정재의 문인이지만 정재의 학문을 이은 것이 만구와 서산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만구가 정재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재의 학문을 계승한 만구와 한주의 학문을 계승한 면우의 사단칠정론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이론적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sup>4)</sup> 이들의 이론적 차이는 결국 19세기 대표적인 퇴계학과인 정재학과와 한주학과의 해석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19세기 분화된 퇴계학과에서 어떻게 전개변용되었는지 그 전개양상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성리학의 주요쟁점으로는 ‘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 심설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에 대한 해석이 심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아울러 살펴본다.

## II. 만구 이종기의 사단칠정론

---

3) 『東儒學案』中編13, 「坪浦學案」, “西山寒洲晚求, 皆定齋之門人, ……定齋居大坪, 西山晚求主之, 是名坪學. 寒洲居大浦, 后山膠宇倪宇晦堂主之, 是名浦學. 其事與韓南塘李巍巖同出於權遂庵, 而爲湖洛二黨之分者同焉. 湖說爲遂庵所與, 而西山晚求又定齋所與也.”

4) 면우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연구로는 김형찬,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사단칠정론』, 민족과 사상, 서광사, 1992)이 있으나, 만구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1. 사단과 칠정은 모두 理發이다.

만구의 사단칠정론은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을 이발로 해석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발에 대한 긍정은 그대로 ‘氣發一途’만을 주장하는 율곡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먼저 만구는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대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에서 발하니, 성은 곧 리이다. 칠정 또한 리에서 발하는데, 그것을 氣發이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밖으로 形氣에서 감응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과 중시하는 것에 나아가서 氣發이라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리와 기는 반드시 서로 기다려서 用이 되기 때문에 사단에서는 ‘기가 따른다[氣隨]’라고 하고 칠정에서는 ‘리가 탄다[理乘]’라고 하였다. 비록 서로 필요로 하지만 리가 항상 주가 되기 때문에 기에 있어서는 ‘따른다’라고 말하고 리에 있어서는 ‘탄다’라고 하였다. 리가 이미 주가 되어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에서 발한다는 뜻은 끝내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고봉에게 답한 편지」에서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말하였고, 또 그 발하는 것에 각각 묘맥이 있다는 말을 고치고자 하였다.<sup>5)</sup>

성리학의 ‘性發爲情’이라는 명제에 근거하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니 성이 발한 것이다. 또한 성이 곧 리이니 사단과 칠정은 결국 모두 리가 발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 역시 理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퇴계는 사단/이발, 칠정/기발로 해석하였다. 이에 만구는 “칠정 또한 리에서 발하는데 그것을 氣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여, 퇴계가 칠정을 기발로 해석한 이유를 변호한다. “칠정이 밖으로 形氣에서 감응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과 중시하는 것에 나아가서 기발이라 말한 것일 뿐

5) 『晩求集』卷8, 「四七皆氣發理乘之辨」, “蓋四七皆發於性, 性卽理也. 七情亦發於理而謂之氣發者何耶? 以其外感於形氣, 故就其所主與所重而曰氣發耳. 然理與氣必相須爲用, 故於四曰氣隨, 而於七曰理乘也. 雖相須而理常爲主, 故於氣曰隨, 而於理曰乘也. 理旣爲主而四七皆發於理之義, 則終不可誣. 故其答奇高峯書, 反覆言七情非無理, 又欲改其發各有苗脈之語.”

이다.” 즉 퇴계가 칠정을 기발로 해석한 것은 다만 주라·주기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특히 칠정은 밖으로 형기에 감응하기 때문에 형기(기)를 주로 하여 말하여 기발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구는 퇴계의 주라·주기의 논리를 퇴계처럼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논거로 해석하지 않고, 다만 이기불상리의 관계를 강조하는 논거로 해석한다. 물론 주라·주기란 이기의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로 한다[所主 또는 所重]’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구는 퇴계가 이러한 불상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氣隨’라는 말을 덧붙였고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理乘’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설명한다. 물론 만구의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퇴계가 주라·주기를 제기한 것은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퇴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이 때문에 퇴계는 주라·주기의 논리를 所從來로 연결시키는데, 사단은 인의예지의 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단의 소종래는 리가 되고, 칠정은 형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칠정의 소종래는 기가 된다는 것이다.<sup>6)</sup> 이렇게 볼 때, 퇴계의 주라·주기는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만구의 주장처럼 이기불상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구는 퇴계처럼 사단/이발, 칠정/기발로 상대시켜 해석하기보다는 이기불상리라는 혼륜의 관점만을 강조한다. 혼륜의 관점을 강조할 경우,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칠정의 이발이 강조된다. 그래서 만구는 “리와 기는 서로 필요로 하지만 리가 항상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에서 발한다는 뜻은 끝내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칠정을 이발로 보아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만구가 비록 퇴계의 사단/이발, 칠정/기

6) 『退溪全書』卷16,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四之所從來既是理, 七之所從來非氣而何?”

발을 변호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칠정/이발을 강조하는 만큼 결국 퇴계와는 상반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고봉에게 답한 편지」에서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말하였고, 또 그 말하는 것에 각각 묘맥이 있다는 말을 고치고자 하였다”<sup>7)</sup>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만구의 말처럼 퇴계가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말하였으나, 퇴계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정이 기발임을 말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8)</sup>

또한 만구는 “<퇴계가> 「心統性情圖」를 만드는데 이르러서는 中圖에서 특별히 발명하여 본연지성에 나아가 말하여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에서 발한 것임을 밝혔으며, 下圖에서는 기질지성에 나아가 말하여 사단과 칠정이 혹은 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기가 되기도 함을 밝혔다. 그러나 칠정 또한 성에서 발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中圖와 다름이 없다”<sup>9)</sup>라고 하여, 퇴계 「심통성정도」의 요지가 中圖에 있으며 칠정 역시 성에서 발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퇴계의 「심통성정도」 해석에 따르면, “중도는 기품 속에 나아가 본연지성을 가리켜 기품과 섞지 않고 말한 것이다……그 성을 말한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말하여 정이 된 것도 모두 선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sup>10)</sup>, “하도

7) 만구의 “그 말하는 것에 각각 묘맥이 있다는 말을 고치고자 하였다”는 말은 퇴계의 “공이 논한 나의 설 가운데 ‘성현의 희로애락’의 설과 ‘각각 소종래가 있다’는 설에는 과연 온당치 못함이 있는 듯하다(所論鄙說中, 聖賢之喜怒哀樂及各有所從來等說, 果似有未安.『退溪全書』卷17, 「答奇明彥」)”는 구절을 두고 한 말이다.

8) 『退溪全書』卷16, 「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 “夫四端非無氣, 七情非無理, 非徒公言之, 滉亦言之, 非徒吾二人言之, 先儒已言之, 非先儒強而言之, 乃天所賦人所受之源流脈絡固然也. 然其所見始同而終異者無他. 公意以謂四端七情, 皆兼理氣, 同實異名, 不可以分屬理氣. 滉意以謂就異中而見其有同, 故二者固多有渾淪言之; 就同中而知其有異, 則二者所就而言, 本自有主理主氣之不同, 分屬何不可之有? 斯理也, 前日之言, 雖或有疵, 而其宗旨則實有所從來.”

9) 『晩求集』卷8, 「四七皆氣發理乘之辨」, “及其爲心統性情圖也, 於中圖特發明之, 就本然性言而明四七之皆發於理, 下圖則就氣質性言而明四七之或理或氣. 然謂七情亦發於性, 則與中圖無異也.”

10) (『退溪全書』卷7)『聖學十圖』, 「第6 心統性情圖」, “其中圖者, 就氣稟中指出本然之性,

는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그 성을 말한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발하여 정이 되는 것도 리와 기가 서로 돕거나 서로 해치는 것으로 말하였다. 예를 들어 사단의 정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르며……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다”<sup>11)</sup>라고 하였으니, 퇴계의 칠정에 대한 해석은 실제로 중도의 뜻보다는 하도의 뜻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만구는 퇴계의 취지와 달리 칠정을 중도의 뜻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중도에서의 성은 본연지성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정에서도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여 모두 선하다. 따라서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까지도 모두 이발이 된다. 그러나 하도에서의 성은 본래 하나이지만 淸濁粹駁의 차이가 있는 기품 속에 있기 때문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두 가지 명칭으로 구분되며, 그 정도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되어 사단은 ‘理發而氣隨之’가 되고 칠정은 ‘氣發而理乘之’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퇴계가 「심통성정도」의 하도에 근거하여 사단/이발, 칠정/기발로 상대시켜 해석하려는 것과 달리, 만구는 「심통성정도」의 중도에 근거하여 칠정 역시 성(리)에서 발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퇴계보다는 오히려 고봉(또는 율곡)의 해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퇴계와 고봉 사단칠정론에서 고봉이 끝까지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칠정/기발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고봉은 칠정이 이기를 겸하므로 결코 기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sup>12)</sup> 칠정이란 이기를 겸하기 때문에 칠정의 중절한 것은 바로 ‘천명의 성’이요 ‘본연의 체’이니 사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만구는 이기불상리(혼륜)의 관점에서 칠정이 이발임을 강조한다.

---

不雜乎氣稟而爲言.……其言性既如此, 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

11) 『退溪全書』卷7)『聖學十圖』, 「第6 心統性情圖」, “其下圖者, 以理與氣合而言之.……其言性既如此, 故其發而爲情, 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12) 『高峯集』, 「四端七情後說」, “七情之發而中節者, 則與四端初不異也. 蓋七情雖屬於氣, 而理固自在其中, 其發而中節者, 乃天命之性本然之體, 則豈可謂是氣之發而異於四端耶?”



노선생이 또한 스스로 “『중용』의 칠정은 혼란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達道는 기발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가 발할 때에 리가 타서 중절한 것은 오직 達道라고 말할 수 없겠는가? 말 밖의 뜻을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하니, 순임금이 화내고 맹자가 기뻐하는 것은 理發이라 하는 것이 옳다.<sup>13)</sup>

희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을 때는 비록 大本의 中이지만, 그것이 발할 때에는 혹 리가 동하기도 하고 혹 기가 동하기도 한다. 퇴계가 『중용』의 칠정이 사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으니, 이미 ‘포함한다’고 하면 비단 이발이 될 뿐만이 아님을 볼 수 있다.<sup>14)</sup>

여기에서 노선생은 퇴계를 말한다. 만구는 퇴계가 『중용』의 칠정을 혼란하여 말하였다고 설명한다.<sup>15)</sup> ‘칠정을 혼란하여 말하였다’는 것은 칠정이 이기를 겸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것은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 기가 발할 때에 이 리가 타므로 중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순임금이 화내거나 맹자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칠정의 중절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발이며 達道가 된다. 만약 혼란이 아니라 척발해서 말하면, 사단은 리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 되니 칠정의 達道를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봉은 혼란의 관점에서 칠정이 이기를 겸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만구는 퇴계가 『중용』의 칠정이 사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다고 설명한다.<sup>16)</sup> 칠정이 선한 사단(이발)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으

13) 『晩求集』卷5, 「答宋直夫(德炳)」, “老先生亦自謂中庸七情渾淪言之, 則達道非指氣發. 然氣發理乘而中節焉者, 獨不可以謂達道乎? 言外之意, 亦當識取, 舜孟之喜怒, 謂之理發可也. 而至若四端之不中節者, 可謂氣掩, 而不可謂之氣發也.”

14) 『晩求集』卷7, 「答沈建七(斗煥)」, “喜怒哀樂之未發, 雖是大本之中, 而其發也或理動或氣動. 退溪以中庸七情, 爲包四端在其中, 既曰包則不獨爲理發可見矣.”

15) 이 내용은 아마도 『退溪全書』卷16,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에 나오는 글인 듯하다. “子思之論中和, 言喜怒哀樂, 而不及於四端, 程子之論好學, 言喜怒哀懼愛惡欲, 而亦不言四端, 是則就理氣相須之中而渾淪言之也.”

16) 인용문에서 말한 ‘칠정이 사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栗谷全書』卷10, 「答成浩原(壬申)」에 보인다. “四端只是善情之別名, 言七情則四端在其中矣.”거나 “若七情則已包四端在其中, 不可謂四端非七情, 七情非四端也, 烏可分兩邊乎?” ‘칠정이 사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표현은 율곡의 핵심 이론인데, 만구는 이것이

니 칠정 또한 이발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만구가 퇴계의 이론을 인용하면서도 결국 칠정/이발을 논증하는 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퇴계의 해석과 상반된다. 이러한 사실은 “회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을 때는 비록 大本의 中이지만, 그것이 발할 때에는 혹 리가 동하기도 하고 혹 기가 동하기도 한다”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회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는 大本의 中이다’는 말은 칠정 또한 성에 근원한다는 것으로, 이발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퇴계는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에 본연과 기품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sup>17)</sup>라고 하여,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에 이미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율곡으로부터 二本의 혐의가 있다고 비판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만구는 퇴계의 말로써 칠정/이발에 대한 논거를 삼는다. 이러한 만구의 해석은 퇴계의 칠정/기발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 2. 율곡의 ‘氣發一途’에 대한 비판

또한 만구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이라는 관점에서 이발을 부정하고 기발만을 주장하는 율곡의 ‘기발일도’를 비판한다.

대개 논할만한 것은 氣發이라는 한마디 말에 있는데, 율곡은 도리어 理發의 설을 심하게 비방하여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리가 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생각은 ‘리는 無爲하고 기만 有爲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은 모두 氣發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율곡 또한 스스로 “사단과 칠정은 모두 본연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본연에서 나온다는 것은 理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컨대 나무가 뿌리에서 나왔으면 ‘뿌리가 발한다’

---

퇴계의 말이라고 설명한다. 퇴계가 이런 말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고봉과 전개한 사단칠정논변에는 이 글이 보이지 않는다.

17) 『退溪全書』卷16,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故愚嘗妄以爲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

라고 하는 것이 옳고, 곡식이 종자에서 나왔으면 ‘종자가 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sup>18)</sup>

앞의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만구는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 역시 성이 발한 것이므로 이발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실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은 기발이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율곡은 도리어 이발의 설을 심하게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구는 율곡이 이발을 비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理無爲氣有爲’의 이론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 리는 무위하므로 發과 같은 작위적 개념에는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기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율곡은 “사단과 칠정은 모두 본연에서 나온다”<sup>19)</sup>라고 하여, 사단과 칠정이 모두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만구는 율곡의 ‘본연지성에 나온다’는 말을 그대로 ‘본연지성이 발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이유으로써 나무가 뿌리에서 나왔으면 뿌리가 발한다고 해야 하고, 곡식이 종자에서 나왔으면 종자가 발한다고 해야 하는 것처럼, 사단과 칠정 또한 본연지성에서 나왔으므로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율곡 자신의 말에 근거해보더라도, 사단과 칠정은 모두 본연지성(리)이 발한 것이므로 이발이 되어야 하는데, 율곡은 도리어 기발로 해석하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만구는 리를 無爲한 것으로 보는 율곡과 달리, 리에 작용이 있다고 강조한다.

18) 『晩求集』卷8, 「四七皆氣發理乘之辨」, “蓋可論者在於氣發一語, 而栗谷反深詆理發之說, 曰四端七情皆氣發而理乘之. 其意以爲理無爲而氣有爲, 故情皆氣發云爾. 然栗谷亦自謂四七皆出於本然, 則出於本然者, 非理發而何? 如樹木出於根則謂根之發可也, 穀種出於種子則謂種子之發可也.”

19) 이 구절에 관한 내용은 『栗谷全書』卷10, 「答成浩原」에 보인다. “다만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기 때문에, 정이 본연지성에서 나와 형기에 가려지지 않는 것은 리에 속하고, 당초에 비록 본연에서 나왔더라도 형기가 그것을 가리면 기에 속하니 이 또한 부득이한 말이다.(但理無爲而氣有爲, 故以情之出乎本然之性, 而不揜於形氣者, 屬之理, 當初雖出於本然, 而形氣揜之者, 屬之氣, 此亦不得已之論也.)”

대개 리는 비록 無爲하나 막 기에 합하면 바로 발용할 수 있으니, 마치 촛불이 기름을 얻으면 곧 많은 불꽃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자가 “도와 리는 본래 스스로 작용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리가 있는 후에 기가 있다. 비록 동시에 모두 있지만 결국 이것은 리를 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지금 율곡은 다만 ‘리는 무위하다’는 한마디 말만을 고수하고 그것에 저절로 작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마음에서 기를 먼저 말할 줄만 알고 리를 주로 한다는 것을 살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단과 칠정을 모두 氣發로 여기고 이른바 ‘理乘’이라는 것은 다만 그것을 따르는 것일 뿐이니, 여기에서 기는 大本이 되고 리는 죽은 물건이 되어 리는 기를 거느리지 못하고 기가 도리어 리를 운용하게 되었다. 그 처음을 추론해보면 다만 ‘기의 精爽’ 한 구절을 잘못 본 데에서 생겨났지만, 그 흘러간 잘못이 이와 같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0)</sup>

여기에서 만구는 리가 無爲한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음을 강조한다. 비록 리가 무위하나 리가 기와 합쳐지면 바로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촛불에 기름이 더해지면 바로 많은 불꽃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sup>21)</sup> 이 때문에 주자는 “리에는 본래 스스로 작용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리의 작용(주재) 때문에 “리와 기가 동시에 함께 있지만 결국 리를 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율곡은 ‘리가 무위하다’는 말만을 고수하여

20) 『晚求集』卷8, 「四七皆氣發理乘之辨」, “蓋理雖無爲, 而纔合於氣, 便能發用, 如燭火得脂膏便有許多光燄. 故朱子曰道理固自有用, 又曰有理而後有氣, 雖是一時都有, 畢竟是以理爲主. 今栗谷徒守理無爲之一語, 而不知其自有用, 但見心之先言氣, 而不察其主於理. 遂以四端七情爲皆氣發, 而所謂理乘者, 特隨之而已, 於是乎氣爲大本而理爲死物, 理不帥氣而氣反運理. 原其初則特出於錯看氣之精爽一句, 而其流之差有如是者, 可勝歎哉.”

21) 이와 비슷한 설명이 『朱子語類』卷5, 「性理(2)」에도 보인다. 주자는 “리가 지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가 모여서 모양을 이루고 리가 기와 합쳐지면 바로 지각할 수 있다. 비유하면 촛불이 기름을 얻으면 많은 불꽃이 생기는 것과 같다.(問, 知覺是心之靈固如此, 抑氣之爲邪?. 曰不專是氣, 是先有知覺之理. 理未知覺, 氣聚成形, 理與氣合, 便能知覺. 譬如這燭火, 是因得這脂膏, 便有許多光燄.) 즉 리에는 비록 지각과 같은 작용이 없지만, 리가 기와 합쳐지는 순간 바로 지각의 작용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리에 작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심에서 기만을 말할 줄 알고(心是氣) 리가 주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로 보았으며 ‘理乘’의 의미 또한 리가 기를 타고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게 되니, 결국 기가 太本이 되고 리는 죽은 물건이 되어 리가 기를 통솔주재하지 못하고 도리어 기가 리를 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만구는 율곡이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로 해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심을 기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자는 ‘성정의 덕을 신묘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였는데, 율곡은 마음을 기로 여겼다. 그러므로 마음의 신묘한 곳에 대해 모두 기로 보았으니 마땅히 정을 기발로 여긴 것이다.”<sup>22)</sup> 즉 율곡이 심을 기로 보았기 때문에 심에서 발용한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구는 정의 문제를 심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19세기 성리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만구가 활동한 19세기는 이전의 정과 성에 대한 해석을 넘어 정과 성을 총괄하는 심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을 둘러싸고 심설논쟁이 활발히 전개된다. 이렇게 볼 때, 만구가 정의 문제를 심과 연관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에 만구는 율곡이 심을 기로 해석하게 된 원인을 추론해 볼 때, 주자의 “심은 기의 精爽이다”<sup>23)</sup>라는 한 구절을 잘못본데 연유한다고 설명한다. 율곡은 주자의 심에 대한 해석인 ‘기의 精爽’에서, 뒷부분의 ‘之精爽’의 세 글자를 무시하고 앞부분의 ‘기’라는 한 글자에만 근거하여 심을 곧장 기로 보았으며, 이 때문에 결국 심에서 발용한 사단과 칠정까지도 모두 기발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만구는 율곡의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는 구절을 그대로 리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리가 無爲한 것이 아님을 재삼 강조한 표현이다.

22) 『晩求集』卷8, 「四七皆氣發理乘之辨」, “朱子曰妙性情之德者心也, 栗谷以心爲氣. 故於心之妙處, 皆作氣看, 宜其以情爲氣發也.”

23) 『朱子語類』卷5, 「性理(2)」, “心者, 氣之精爽.”

율곡이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sup>24)</sup>라고 하였는데, 이 네 구절은 마음을 평온히 하여 살펴보면 또한 저절로 병통이 없다. 무릇 발하는 것은 비록 기이지만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니 리가 본래 주가 되고, 비록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으나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으니 리에 저절로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주자가 “깨닫는 것은 마음의 이치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의 신령함이다”라고 하였고, 또 “지각은 전적으로 기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움직이는 곳은 마음이고 움직이는 것은 성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네 구절은 본래 바꿀 수 없는 것이다.<sup>25)</sup>

율곡은 퇴계의 사단/이발, 칠정/기발이라는 이기호발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히 무위인 리가 발한다는 ‘이발’의 설을 비판하여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라고 해석한다. 율곡은 ‘理無爲 氣有爲’의 이론에 근거하여 발하는 것은 기가 되고, 리는 기가 발할 수 있게 하는 원인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발하는 것은 기이고,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구는 율곡의 이 구절의 내용이 매우 타당하여 바꿀 수 없는 정론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율곡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는 율곡과 차이를 보인다. 즉 “무릇 발하는 것은 비록 기이지만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니 리가 본래 주가 되고, 비록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으나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으니 리에 저절로 작용이 있다.” 여기에서 만구는 율곡의 구절을 그대로 리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율곡이 리의 無爲를 강조하여 이발을

24) 『聖學輯要』, 「論心性情」, “凡情之發也, 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理氣混融, 元不相離, 若有離合, 則動靜有端, 陰陽有始矣.” 율곡의 이 구절은 퇴계의 사단/이발, 칠정/기발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면서 不相離 관계 속에서 이기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25) 『晚求集』卷8, 「雜著-四七皆氣發理乘之辨」, “栗谷曰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這四句平心看下, 亦自無病. 夫發之者雖氣而所以發者理, 則理固爲主也, 雖非氣不能發而非理無所發, 則理自有用也. 故朱子曰所覺者心之理也, 能覺者氣之靈也. 又曰知覺不全是氣. 又曰動處是心, (此心字從氣說), 動底是性, 以是而觀, 則四句固不可易也.”

부정하는 것과 상반된다. 만구가 율곡의 이 구절을 리의 작용으로 해석한 것은 결국 이발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율곡의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는 구절을 두고서, 율곡이 ‘발하는 것은 기이고,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다’는 앞부분의 말에 근거하여 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만구는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는 뒷부분의 말에 근거하여 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구는 이 뒷부분의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리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율곡과 달리 리는 결코 무위한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리의 주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어서 만구는 이러한 리에 작용이 있다는 관점에서 율곡의 네 구절을 비판한다.

지금 율곡의 뜻은 그렇지 않으니 情을 모두 기가 발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네 개의 發자는 모두 기를 따라 말하였으니, ‘발하게 하는 것[所以發者]’이라 말한 것은 기가 발하게 하는 것이고, ‘발할 것이 없다[無所發者]’라고 말한 것은 기가 발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두 개의 理자는 다만 예를 드는데 상대적으로 거론한 물건이 될 뿐이고 주재와 발용의 신묘함이 없으니, 대개 그 말한 것은 비록 동일하지만 그 뜻은 매우 다르다. 근래에 한주 이공이 ‘발하는 것은 리이고 발하게 되는 것은 기이다’라고 하였으니, 뜻이 도리어 평온하다. 대개 먼저 ‘발하는 것은 리이다[發者理]’라고 말하였으니, 곧 리에 저절로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어서 ‘발하게 되는 것은 기이다[發之者氣]’라고 말하였으니, 리가 기를 타고서 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리를 주로 하는 뜻이 된다.<sup>26)</sup>

26) 『晩求集』卷8, 「四七皆氣發理乘之辨」, “今栗谷之意則不然, 以爲情皆氣發. 故四箇發字, 皆從氣上說, 其曰所以發者, 氣所以發也, 其曰無所發者, 氣無所發也. 兩箇理字, 只爲備例對舉之物, 而無主宰發用之妙, 蓋其下語雖同, 而其意則迥異矣. 近世寒洲李公言發者理也, 發之者氣也, 意却平穩. 蓋先言發者理, 則理之自有用可見矣, 繼言發之者氣, 則理之乘氣而發可知矣, 此其爲主理之旨也.”

여기에서 만구는 율곡의 네 구절(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다)이 지나치게 기 위주로 해석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發者氣’나 ‘非氣則不能發’뿐만 아니라 ‘所以發者’도 결국 리가 아닌 기가 발하게 하는 것이 되고 ‘無所發者’도 결국 리가 아닌 기가 발할 것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두 개의 ‘리’자는 다만 기를 거론하기 위한 형식적인 물건이 될 뿐이니 리의 주재하고 작용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구는 차라리 한주의 ‘發者理也, 發之者氣也’의 말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發者理’는 발하는 것이 리이므로 리에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發之者氣’는 발하게 되는 것은 기이므로 리가 기를 타고 발하지만 리를 주로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주의 이 말이 리의 작용하고 주재하는 의미를 더 잘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 III.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 1. 사단과 칠정은 經緯의 관계이다.

면우의 사단칠정론은 사단과 칠정(십정)을 經緯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서 시작된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는 천지의 기를 얻어서 기(형체)로 삼고 천지의 리를 얻어서 성으로 삼는다. 기는 수화목금토의 기이고 성은 인의예지신의 리이다. 이러한 이기가 발함에 중형으로 착종하여 사단과 칠정이 생겨나는데, 이때 인의예지(신)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기를 타고 곧게 발한 것이 사단이며, 리가 기를 타고 옆으로 나온 것이 십정이다.”<sup>27)</sup> 이때 수화목금토

27) 『俛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人之生也, 得天地之氣以爲氣, 得天地之理以爲性, 心者合性與氣之名也, 而其氣則水火木金土之氣也, 其性則仁義禮智信之理也.……理氣之發, 縱橫錯綜, 其理之乘氣而直發者爲經, 四端是也, 其理之乘氣而旁生者爲緯, 十情是也.”



의 기를 經氣라고 부르고 수화목금토의 生克하는 기를 緯氣라고 부른다. 그래서 “리가 經氣를 타고 곧게 나온 것을 사단이라 하고, 리가 緯氣를 타고 옆으로 나온 것을 칠정(십정)이라 한다.”<sup>28)</sup>

이어서 사단과 십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니, 먼저 사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仁의 리가 木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측은이라 하며, 禮의 리가 火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사양이라 하며, 義의 리가 金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수오라고 하며, 智의 리가 水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시비라고 한다.……이것은 사단이 곧게 발하여 經이 된 것이다.<sup>29)</sup>

또한 十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智와 仁의 리가 水生木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사랑[愛]이라 하며, 仁과 禮의 리가 木生火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기쁨[喜]이라 하며, 禮와 信의 리가 火生土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즐거움[樂]이라 하며, 信과 義의 리가 土生金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근심[憂]이라 하며, 義와 智의 리가 金生水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슬픔[哀]이라 한다. 禮와 義의 리가 火克金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미워함[惡]이라 하며, 義와 仁의 리가 金克木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노여움[怒]이라 하며, 仁과 信의 리가 木克土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분노[忿]라 하며, 信과 智의 리가 土克水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욕구[欲]라 하며, 智와 禮의 리가 水克火의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을 두려움[懼]이라고 한다. 이것은 十情이 옆으로 나와서 緯가 된 것이다.<sup>30)</sup>

28) 『俛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理之乘單遂之經氣而直發者曰四端, 理之乘生克之緯氣而旁生者曰七情.”

29) 『俛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仁之理乘木之氣而發曰惻隱……禮之理乘火之氣而發曰辭讓……義之理乘金之氣而發曰羞惡……智之理乘水之氣而發曰是非……此則四端之直發而爲經者也.”

30) 『俛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智之仁之理乘水生木之氣而發曰愛…仁之禮之理乘木生火之氣而發曰喜…禮之信之理乘火生土之氣而發曰樂…信之義之理乘土生金之氣而發曰憂…義之智之理乘金生水之氣而發曰哀…禮之義之理乘火克金之氣而發

인의예지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기[經氣]를 타고 곧게 발한 것이 사단이라면, 인의예지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生克하는 기[緯氣]를 타고 옆으로 나온 것이 十情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칠정과 달리 十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오행의 生하는 기인 水生木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의 기를 타고 발한 愛喜樂憂哀와 오행의 克하는 기인 火克金金克木木克土土克水水克火의 기를 타고 발한 惡怒忿欲懼로 모두 10개의 정이다. 이에 면우는 십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生克의 기가 모두 열인데, 정의 큰 것이 일곱뿐이었다. 그러므로 『대학』 전7장의 네 개의 정을 취하여 그 모양을 묵묵히 추론하니 꼭 들어맞아 어긋나지 않았다.”<sup>31)</sup> 즉 오행의 生克의 기로 칠정을 설명하자니 10개의 정이 필요하였으며, 이 때문에 「예운」의 화로애구애오옥 일곱에다 『대학』의 ‘忿懣(忿)·恐懼好樂(樂)·憂患(憂)’ 중에서 忿樂憂 셋을 더하여 10개의 정으로 맞추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을 사단과 십정으로 구분한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맹자』·『예기』·「예운」·『대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맹자』에서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맹자』에서 사단을 얻었다. 『예기』·「예운」에서 화로애구애오옥이라 하고 『대학』에서 ‘마음에 분차·호락우환이 있다’고 하였으니, 나는 「예운」과 『대학』에서 십정을 얻었다.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사사로이 만든 것이 아니다.”<sup>32)</sup>

더 나아가 면우는 사단과 십정을 오행뿐만 아니라 천도의 운행질서나 자

曰惡…義之仁之理乘金克木之氣而發曰怒…仁之信之理乘木克土之氣而發曰忿…信之智之理乘土克水之氣而發曰欲…智之禮之理乘水克火之氣而發曰懼…此則十情之旁生而爲緯者也.”

31) 『倪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然而生克之氣凡一十, 而情之大目七而已. 故竊取大學傳七章四有之情, 默推其貌狀, 則盖脗合而不爽焉.”

32) 『倪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噫孟子曰惻隱之心仁之端也, 羞惡之心義之端也, 辭讓之心禮之端也, 是非之心智之端也, 吾於孟子, 得四端焉. 禮運曰喜怒哀懼愛惡欲, 大學曰心有所忿懣好樂憂患, 吾於禮運大學, 得十情焉. 由是而已, 非余之所私爲也.”

연현상과도 연결시켜 설명한다.

지금 天道로 말하면, 원형이정의 리가 오행의 기를 타고 곧게 완수되면, 봄에 생겨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작용이 되니, 사람에게는 四端이 그것이다. 원형이정의 리가 오행의 기를 타고 옆으로 행하면 바·바람·이슬·서리·눈·번개·우레·안개·구름·무지개의 작용이 되니, 사람에게는 十情이 그것이다.<sup>33)</sup>

원형이정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經氣를 타고 곧게 발하여 사계절의 生長收藏이 되는데, 이것은 인의예지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經氣를 타고 곧게 발하여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이 되는 것과 같다. 또한 원형이정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緯氣를 타고 옆으로 발하여 바·바람·이슬·서리·눈·번개·우레·안개·구름·무지개 등의 자연현상이 되는데, 이것은 인의예지의 리가 수화목금토의 緯氣를 타고 옆으로 발하여 愛喜樂憂·哀惡怒忿·欲懼의 심정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을 천도에 근원시켜 해석한 것으로써 그의 천인합일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면우는 經(씨줄)·緯(날줄)의 특성에 근거해서 사단의 수는 일정하여 바뀔 수 없으나 칠정의 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한다. “네 가지의 단서는 줄여서 셋이 될 수 없고 또한 늘여서 다섯이 될 수 없으니, 흡사 서로 모여 붙어있는 것과 같아서 옮기거나 바꿀 수 없다. 일곱 가지의 정은 천 백가지로 부연할 수 있고 또한 한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서 별도의 정해진 수가 없으니, 다만 보는 바가 어떠한지에 달려있을 뿐이다.”<sup>34)</sup> 다시 말하면, 經氣를 타고 발하는 사단은 씨줄(經)의 특성처럼 그 수가 일정하여 바뀔 수

33) 『俛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今以天道言之, 元亨利貞之理, 乘五行之氣而直遂, 則爲春生夏長秋斂冬藏之用, 在人則四端是也. 元亨利貞之理, 乘五行之氣而旁行, 則爲雨風露霜雪電雷霧雲霞之用, 在人則十情是也.”

34) 『俛宇集』卷128, 「四端七情說」, “故四者之端, 不可減之爲三, 亦不可增之爲五, 而恰相湊著, 移易了不得矣. 以氣則有萬不齊, 故七者之情, 可以衍之爲千百, 亦可以約之爲一二, 而別無定數, 惟在乎所看之如何耳.”

없으나, 緯氣를 타고 발하는 칠정(십정)은 날줄(緯)의 특성처럼 정해진 수가 없다. 때문에 십정 외에도 의심[疑]·후회[悔]·부끄러움[愧]·안타까움[惜]·싫어함[厭]·괴로움[苦] 등의 다른 정이 없을 수 없으며, 다만 십정은 정을 모두 말한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정 가운데 그 대략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sup>35)</sup>

## 2. 사단과 칠정은 모두 理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經緯의 이론구조이다. ‘경위’란 체용의 이론처럼 하나를 經[날줄]과 緯[씨줄]의 두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즉 하나의 정을 經의 측면에서 말하면 사단이 되고 緯의 측면에서 말하면 칠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은 하나의 정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퇴계처럼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별개의 정으로 해석할 경우는 經緯의 이론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은 하나이며, 이 하나의 정은 성에서 발한 것이므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발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임을 강조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단은 공정하고 칠정은 사사로우며 사단은 귀하고 칠정은 천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分開說에서는 옳겠지만 칠정의 모습을 다 말한 것이 아니다. 칠정 역시 이 성에서 발한 것이니 어찌 온전히 사사로움과 공정하지 않으며 천하고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용』의 회로애락은 천하의 達道가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니, 공자의 두려움은 난신적자의 僭竊[본분을 뛰어넘어 참람하거나 함부로 도둑질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고, 자사

35) 『俛宇集』卷128, 「四端十情經緯圖」, “然而十情之外, 亦不能無他情, 若疑悔愧惜厭苦之類是也. ……此其大略也, 餘不盡說.”

36) 베틀의 경우, 날실[經]은 베틀에 고정되어 있고 씨실[緯]이 좌우로 왕복하면서 베를 짜나가니,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기다려서 함께 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씨실과 날실이 별개의 두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 표현이다.(금장태, 『퇴계학파의 사상(Ⅰ)』, 집문당, 1996, pp.205-206 참조)

의 걱정은 이 도가 전해지지 못함을 걱정한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불선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것을 미워하는 미워함이며, 내가 인하고자 하고 선하고자 하는 욕구이니,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잡거나 진실로 귀하고 천하지 않는 것을 채운 것이 아님이 없겠는가?<sup>37)</sup>

여기에서 면우는 칠정 역시 성에서 발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래서 “『중용』의 회로애락은 천하의 達道가 되는데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써 『중용』의 칠정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공자의 두려움은 난신적자가 참람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고, 자사의 걱정은 이 도가 전해지지 못함을 걱정한 것이며, 부모를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불선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것을 미워하는 미워함이며, 내가 仁하고자 하고 선하고자 하는 욕구이니, 이것은 모두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천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칠정이 達道가 되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으니 이발이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면우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은 공정하고 칠정은 사사로우며 사단은 귀하고 칠정은 천하다고 말하는 것은 칠정의 모습을 다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즉 칠정의 모습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며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인데, 왜냐하면 칠정 역시 성에서 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면우는 이러한 達道の 칠정은 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단의 층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것은 칠정이 갑자기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층간에서

37)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世之言者, 皆曰四公而七私, 四貴而七賤, 此於分開說則得矣, 非所以盡七情之貌狀也. 七情亦發於此性, 豈其純私而不公, 可賤而不貴也哉? 中庸之喜怒哀樂, 無愧於爲天下之達道, 孔子之懼, 懼亂賊之僭竊; 子思之憂, 憂斯道之失傳; 愛親愛君之愛, 惡不善惡夫佞之惡, 我欲仁可欲善之欲, 何莫非秉至公而無私, 充良貴而不賤者乎?”

변갈아 나온 것이다. 공자의 두려움은 수오의 두려움[懼]이고, 자사의 걱정은 측은의 걱정[憂]이다. 아첨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시비의 미워함[惡]이며, 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경의 욕구[欲]이다. 문왕이 부모의 건강을 기뻐하는 것은 측은의 기쁨[喜]이고, 위대한 순임금이 四凶에게 분노하는 것은 수오의 분노[怒]이다. 정을 얻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시비의 슬픔[哀]이고, 화기에애하게 한담하여 공자가 즐거워한 것은 공경의 즐거움[樂]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가면 사단이 칠정을 총괄하니 칠정의 공일변은 진실로 천하의 達道가 되는데 무끄러움이 없다.<sup>38)</sup>

여기에서 칠정이 達道가 되는 것은 사단이 칠정을 총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단이 칠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유로써, 공자의 두려움은 수오의 두려움이며, 자사의 걱정은 측은의 걱정이며, 아첨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시비의 미움이며, 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경의 욕구이며, 문왕이 부모의 건강을 기뻐하는 것은 측은의 기쁨이며, 위대한 순임금이 四凶에게 분노하는 것은 수오의 분노이며, 정을 얻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시비의 슬픔이고, 화기에애하게 한담하여 공자가 즐거워한 것은 공경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면우는 칠정이 사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로써 설명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병이 들면 측은지심이 발하는데, 음식도 조금 드시고 기력이 점차 회복되시면 기뻐하고[喜], 의사를 불러도 오지 않고 약을 청해도 주지 않으면 화나며[怒], 병이 더 심해져서 숨이 곧 끊어질듯하면 슬퍼하고[哀], 몸조리에 효과가 있어 평상시의 기운을 회복하시면 즐거워하니[樂], 이는 회로애락이 측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sup>39)</sup> 이것은 측은지심의 사단

38) 『俛字集』卷128, 「四七雜記」, “但此非七情之驀地自由, 而卽從四端層間迭見者也. 孔子之懼, 羞惡之懼也; 子思之憂, 惻隱之憂也. 惡夫佞, 是非之惡也; 可欲善, 恭敬之欲也. 文王之喜親康, 惻隱之喜也; 大舜之怒四凶, 羞惡之怒也. 得情而哀矜, 是非之哀也; 間侃而子樂, 恭敬之樂也. 以此推之, 四端統七情, 而七情之公一邊, 固無愧於爲天下之達道矣.”

39) 『俛字集』卷128, 「四七雜記」, “父母有疾, 惻隱之心發焉, 而匙箸稍進, 氣力稍完則喜; 迎醫不至, 請藥不與則怒; 敗症添就, 奄奄欲絕則哀; 調理有方, 體候復常則樂, 此則喜

에 근거해서 회로애락의 칠정이 나오니, 만약 측은지심이 없으면 회로애락도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오·사양·시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칠정은 결국 사단에서 나온 것이지 칠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구는 “『중용』의 칠정은 바로 사단의 칠정이지 칠정의 칠정이 아니다”<sup>40)</sup>라고 말한다. 이것은 達道한 칠정(또는 사단의 칠정)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해석은 고봉의 “칠정이라는 것은 비록 기와 관계되는 것 같지만, 리가 또한 저절로 그 속에 있어서 발하여 중절한 것은 천명의 성이고 본연이 체이니, 맹자가 말한 사단과 내용은 같고 이름이 다른 것이다”<sup>41)</sup>는 말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중절한 칠정이 사단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는,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정으로 본다는 것과 이 하나의 정이 성에서 발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까지 모두 이발로 해석하니, 이발한 사단과 이발한 칠정은 결국 다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면우는 사단이 칠정을 총괄하며 칠정이 사단의 층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사단/이발, 칠정/기발이라 하여 별개의 정으로 구분하는 퇴계의 이론과는 분명히 대조된다.

더 나아가 면우는 達道의 칠정뿐만 아니라 「예운」의 칠정, 즉 형기의 칠정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운」의 칠정과 같은 것은 사망·가난·음식·남녀상에서 말한 것이니, 예를 들어 부귀를 기뻐하고, 거역하면 분노하며, 죽음을 슬퍼하며, 환난을 두려워하며, 동류를 사랑하며, 자기와 다른 것을 미워하는 경우이다. 수레·말·종·복의 즐거움, 성쇠·득실의 걱정, 성색·취미의 욕구는 모두 칠정의 칠정이니, 점검하고 살펴서 마땅히 옳으면 선이 되고, 방종하여 그 법도를 잃으면 악이 된다. 형기의 누를 속일 수 없으니, 이것으로 사단에 상대하면 이기의 구별이 또한 분

怒哀樂之由於惻隱者也.”

40)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愚故曰中庸之七情, 卽四端之七情, 而非七情之七情也.”

41) 『高峯集』, 「論四端七情書」, “然而所謂七情者, 雖若涉乎氣者, 而理亦自在其中, 其發而中節者, 乃天命之性, 本然之體, 而與孟子所謂四端者, 同實而異名者也.”

명하지 않겠는가? 다만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가 주가 될 때는 리가 끼인 바가 되어 흡사 없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 실상을 궁구하면 만 가지 정에 어찌 리가 없는 정이 있겠는가?<sup>42)</sup>

여기에서 면우는 형기의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래서 “만 가지 정에 어찌 리가 없는 정이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중용』의 達道의 칠정뿐만 아니라 『예기』 「예운」의 형기의 칠정도 모두 이발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형기의 칠정이란 부귀를 기뻐하고, 거역하면 분노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동류를 사랑하고, 자기와 다른 것을 미워하는 등과 같은 공공의 칠정이 아닌 사사로운 칠정을 의미한다. 면우는 달도의 칠정을 사단의 칠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기의 칠정을 또한 ‘칠정의 칠정’이라고 부른다.

물론 형기의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형기의 칠정은 점검하고 살펴서 마땅히 옳으면 선이 되나 방종하여 법도를 잃으면 악이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가 주가 되고 리가 사이에 끼인 바가 되어 리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기의 칠정을 사단과 상대시켜 보면, 사단은 리가 주가 되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되어 이기의 구분이 없을 수 없다. 즉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구분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 3. 형기의 칠정은 氣發이다.

면우는 達道의 칠정뿐만 아니라 형기의 칠정까지도 모두 성이 발한 것이므로 이발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또한 형기의 칠정은 사단과 상대시킬 경우 사단/이발[純善], 칠정/기발[易惡]의 구분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적 모순

42) 『倪宇集』卷128, 「四七雜記」, “若夫禮運之七情, 從死亡貧苦飲食男女上說來, 如喜富貴、怒拂逆、哀死亡、懼禍患、愛同類、惡異己、車馬鍾鼓之樂, 盛衰得失之憂, 聲色臭味之欲, 皆是七情之自七情, 而檢察而當其可則爲善, 放縱而失其度則爲惡. 形氣之累, 不可誣也, 以此而對四端, 則理氣之判, 不亦較然乎? 但七情非無理, 而氣爲主時, 理爲其所挾, 恰似泯然底一般耳. 究其實相, 萬般之情, 夫焉有無理之情乎?”



에 직면하여, 면우는 혼륜과 분개라는 두 가지 인식방법을 동시에 제시한다.

혼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선악을 포괄하고 이기를 겸한 것이 하나의 설이고, 사단과 칠정을 합하여 리만을 單指한 것이 하나의 설이다. 분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선으로 나누고 악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설이고, 리로 나누고 기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설이다. 리만을 單指하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며 정은 성에서 발하니, 사단도 이발이고 칠정도 이발인 것은 정의 실질이다. 리로 나누고 기로 나누면 사단이 발할 때는 리에 감응하여 리가 주가 되고, 칠정이 발할 때는 기에 감응하여 기가 주가 되니, 사단이 이발이고 칠정이 기발인 것은 정의 기틀이다. 리가 주가 된 것은 순선하여 악이 없고, 기가 주가 된 것은 조금 선하여 쉽게 악이 된다. 이발이 되는 것을 알면 마땅히 넓혀서 속박하지 말아야 하고, 기발이 되는 것을 알면 마땅히 검속하여 방치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은 분개가 발하는 곳에서 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을 이발이라 하고 칠정을 기발이라 하여 더 이상 정의 실질을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촌 안에 大本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정의 발함에 모두 성이 발한 것이고 기는 다만 바탕으로 삼을 뿐이니, 이것은 혼륜이 本原에서 공이 있는 것이다.<sup>43)</sup>

먼저 면우는 사단과 칠정을 혼륜과 분개의 두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혼륜이란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것이니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기를 겸한다. 때문에 혼륜의 관점에서는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 칠정 역시 성에서 발한 것이므로 모두 이발이 된다. 이에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며 정은 성에서 발하니, 사단도 이발이고 칠정도 이발이다”

43) 『侑字集』卷128, 「四七雜記」, “渾淪有兩義, 統善惡兼理氣者爲一說, 合四七單指理者爲一說. 分開有兩義, 分善分惡爲一說, 分理分氣爲一說. 單指理則四與七皆情也, 而情發於性, 四亦理發七亦理發者, 情之實也. 分理分氣則四端之發, 感於理而理爲主, 七情之發, 感於氣而氣爲主, 四爲理發七爲氣發者, 情之機也. 理之爲主者, 純善而無惡, 氣之爲主者, 少善而易惡. 知其爲理發也則當擴之而勿梏, 知其爲氣發也則當檢之而弗放, 此則分開之有功於發處者也. 謂四爲理發, 謂七爲氣發, 而更不道其情之實, 則疋似方寸之內, 大本有二. 故凡情之發, 均是性發, 而氣特資之而已, 此則渾淪之有功於本原者也.”

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분개란 리와 기를 분리시켜 보는 것이니, 리를 주로 하는 사단과 기를 주로 하는 칠정으로 둘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를 주로 하는 사단은 이발이 되고 기를 주로 하는 칠정은 기발이 된다. 이에 “사단이 발할 때는 리에 감응하여 리가 주가 되고, 칠정이 발할 때는 기에 감응하여 기가 주가 된다. 리가 주가 된 것은 순선하여 악이 없고, 기가 주가 된 것은 조금 선하여 쉽게 악이 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분개의 관점에서는 사단=이발=純善, 칠정=기발=易惡의 구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칠정이 비록 천하의 達道가 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결국 緯氣가 旁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리를 끼고서 제멋대로 내달리는 것이 매번 있으니 이것을 기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거짓이겠는가?”<sup>44)</sup> 이것은 칠정을 기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퇴계의 사단/이발, 칠정/기발은 분개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면우는 이러한 혼륜설과 분개설이 갖는 공로를 각각 설명한다. 먼저 분개설의 공로로써 확충과 단속이라는 두 가지 공부방법을 거론한다.<sup>45)</sup> “이발이 되는 것을 알면 마땅히 넓혀서 속박하지 말아야 하고, 기발이 되는 것을 알면 마땅히 검속하여 방지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므로 확충해나가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므로 단속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확충하는 것이 지극하고 단속하는 것이 다하면 천하의 해야 할 일이 끝난다”<sup>46)</sup>라고 하여, 학문의 뜻이 확충과 단속이라는 두 가지 공부를 벗

44)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惟七者之情, 雖不無爲天下之達道者, 而畢竟是緯氣之旁生者. 故挾理而肆其馳騖者每有之, 以此而謂之氣發, 豈其誣乎?”

45) ‘확충’과 ‘단속’이라는 말은 『맹자』와 정자의 「顔子所好何學論」(『二程文集』卷7)에 보인다. 맹자는 “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확충할 줄 알면 사해에 이를 수 있다(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可以達諸四海.)”라고 하였으며, 또한 정자는 “형체가 이미 생겨나면 외물이 그 형체에 감촉하여 속에서 움직이고, 그 속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 정이 이미 강성하고 더욱 방탕해지면 그 성이 훼손된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그 정을 단속하여 속에 합하게 한다(形既生矣, 外物觸其形而動於中矣, 其中動而七情出. 情既熾而益蕩則其性鑿矣. 故覺者約其情, 使合於中)”라고 하였다.

어나지 않는다는 강조한다. 때문에 보통 사람인 경우도 확충과 단속의 공부를 다하면 성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 사람은 누군들 이 사단이 없겠으며 또 누군들 이 칠정이 없겠는가? 요순주공공자가 모두 이 마음이고, 안자맹자정자주자가 모두 이 정이니, 진실로 그것을 확충하면 나 또한 저들일 뿐이고, 진실로 그것을 단속하면 나 또한 저들일 뿐이다.”<sup>47)</sup>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 역시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구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칠정을 기발로 볼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sup>48)</sup>

그렇지만 이러한 분개설에는 二本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단을 이발이라 하고 칠정을 기발이라 하여 더 이상 정의 실질을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촌의 안에 大本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 즉 퇴계처럼 사단/이발, 칠정/기발을 강조할 경우 사단은 리에서 발한 것이 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 것이 되어 二本의 혐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율곡이 퇴계의 이기호 발설을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면우는 “성은 하나일 뿐이니 만가지의 정이 어찌 성에서 발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성이 발한 것이 아니면 정이 아니니, 기발이라고 하면 근본을 둘로 하니 一源의 자리에 누가 감히 둘로 하겠는가”<sup>49)</sup>라고 하여,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성이 발한 것이므로 근원이 하나임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혼륜설의 공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면우는 혼륜과 분개(또는 수간과 횡간)<sup>50)</sup>의 두 가지 인

46)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擴之至約之盡, 則天下之能事畢矣.”

47)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噫人孰無是四端, 又孰無是七情? 祁姚姬孔同此心也, 顏孟程朱同情也, 苟其擴之, 吾亦彼而已矣, 苟能約之, 吾亦彼而已矣.”

48) 퇴계는 순선하여 악이 없는 사단과 달리, 칠정은 어디까지나 방탕해지기 쉬운 것으로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안유경, 「퇴계와 고봉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온지논총』47, 온지학회, 2016, p.201)

49)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夫性一而已, 萬般之情, 焉有不發於性者乎? 非性發則非情, 謂氣發則二本, 一源之地, 其孰敢二之.”

50) 면우는 한주와 마찬가지로 대상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堅看橫看倒看 등 다양한 인식방법을 강조한다. ‘수간’은 대상이 현상으로 드러내기 이전의 본원을 살피는 것이고, ‘횡간’은 본원에서 현상으로 유행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며, ‘도간’은 현상으로 드러난 이후의 형적을 살피는 것이다. (김문용, 「한주 이진상의 사단칠정론」, 『사단칠정론』, 민족과 사상연구회편, 1992, pp.422-423)

식방법을 동시에 강조한다.

분개를 주로 하면서 근원이 모두 이발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一本處에서 둘로 하는 것이고, 혼륜을 주로 하면서 발하는 곳에 이발과 기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萬殊處에서 하나로 한 것이다. 이것은 산을 보는 자가 豎看하여 봉우리는 되나 고개라고 말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고, 橫看하여 고개는 되나 봉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다.<sup>51)</sup>

내용인즉, 분개를 말하더라도 근원이 모두 이발임을 알아야 하고, 또한 혼륜을 말하더라도 이발과 기발로 나누어볼 수 있어야 한다. 사단/이발, 칠정/기발을 말하면서 근원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一本處[근원]를 둘로 하는 잘못에 빠지게 되고, 근원이 모두 이발임을 말하면서 이발과 기발로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萬殊處[현상세계]를 하나로 보는 잘못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은 혼륜과 분개의 두 관점에서 동시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면우는 이것을 산을 보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즉 같은 산을 보면서도 豎看의 관점에 있는 자는 봉우리라고 해야지 고개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橫看의 관점에 있는 자는 고개라고 해야지 봉우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봉우리든 고개든 모두 산을 설명하듯이, 혼륜과 분개도 모두 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우는 『중용』·「악기」·「호학론」은 수간에서 말한 것이므로 칠정도 모두 이발이 되고, 『맹자』의 사단과 「예운」의 칠정은 횡간에서 말한 것이므로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구분이 있다고 설명한다.<sup>52)</sup> 이것이 바로 혼륜과

51) 『俛字集』卷128, 「四端七情說」, “主於分開而不知根源之皆理發者, 是貳之於一本處也; 主於渾淪而謂無發處之有理發氣發者, 是壹之於萬殊處也. 是看山者之豎看成峯而以謂嶺者爲非也, 橫看成嶺而以謂峯者爲非也.”

52) 『俛字集』卷128, 「四端七情說」, “蓋豎看則均是理發, 故四端固是仁義禮智之發, 而至於七情, 亦有天理之粹然者, 若中庸樂記好學論之所言是也. 橫看則有理發氣發之殊, 故孟子之四端不干於氣事, 禮運之七情從形氣上說來, 此理氣分合之妙也.”

분개의 두 방법을 동시에 거론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一心의 근본에서 말하면 사단과 칠정이 모두 성이 발한 것이므로 이발이 되나, 一心의 작용에서 말하면 사단은 공이 되고 칠정은 私가 되며 사단은 純善이 되고 칠정은 兼惡이 되어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구분이 없을 수 없다”<sup>53)</sup>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매번 수간을 주로 하여 횡간을 의심하거나 혹은 횡간을 주로 하여 수간을 의심하여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니, 그 말이 서로 물과 불처럼 대립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sup>54)</sup> 이에 면우는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다름에 근거하여 본원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거나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임에 근거하여 둘로 나누어볼 줄 모르면, 즉 혼륜과 분개의 두 관점을 동시에 보지 못하면 지식의 진보도 없고 학문의 종지가 밝혀지는 것도 기약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이다.<sup>55)</sup>

#### IV. 결론

이상으로 만구와 면우 사단칠정론을 살펴보았다. 만구 사단칠정론의 특징은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까지도 이발로 보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이발에 근거해서 율곡의 ‘氣發一途’를 비판하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만구는 퇴계의 이론을 자신의 이론적 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퇴계의 ‘理發而氣隨之, 氣發而理乘之’에서, 특히 氣隨와 理乘의 말에 근거해서 퇴계의 이론이 혼륜(불상리)에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퇴계가 분개의 논리를 강조한 것과 상반된다. 또한 「기고봉에게 답한 편지」

53) 『俛宇集』卷128, 「四端七情說」, “以言乎一心之本, 則四德之外無他性, 以言乎一心之用, 則四公而七私四純善而七兼惡.”

54) 『俛宇集』卷128, 「四七雜記」, “世之說者, 每主堅而疑橫, 或主橫而疑堅, 滔滔同歸於不韙之科, 其言之互相水火者無足怪也.”

55) 『俛宇集』卷128, 「四端七情說」, “人方立論於發處之殊, 而從旁勒歸於本原, 以吾有見於本原之一, 而並欲鵲圖於發處, 則知識之進無日, 而宗旨之明無期矣.”

에서 ‘칠정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했다’거나 「심통성정도」의 中圖에 대한 해석을 퇴계의 정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만구는 퇴계의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퇴계의 이론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결국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임을 주장하여 퇴계의 사단/이발, 칠정/기발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강조는 그대로 그의 심론에서 心合理氣의 해석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면우의 心卽理의 해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에서의 기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혼란을 강조하는 사고는 율곡의 이론에 부합하지만, 만구는 ‘理無爲’를 주장하는 율곡과 달리 리의 작용(주재)을 강조한다. 즉 혼란 속에서 리가 기를 타고 발하지만, 심이 작용하면 리가 심을 주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리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리는 무위한 것이 아니니,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로 해석하는 율곡의 ‘氣發一途’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퇴계와도 구분되고 율곡과도 구분되는 만구 사단칠정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만구가 혼란의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해석하려는 것과 달리, 면우는 혼란과 분개의 두 관점을 동시에 강조한다. 물론 면우도 만구처럼 혼란의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해석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經緯에 따른 해석이다. 리가 經氣를 타고 곧게 나온 것이 사단이고, 리가 緯氣를 타고 옆으로 나온 것이 칠정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을 經의 측면과 緯의 측면에서 해석한 것을 말한다. 이 하나의 정은 성에서 발한 것이니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발이 된다. 칠정 역시 리가 발한 것이므로 『중용』에서 말한 達道가 된다. 여기에서 면우는 『중용』의 칠정이 達道가 되는 이유으로써 사단의 층간에서 나왔다거나 사단이 총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칠정을 달도의 칠정(또는 사단의 칠정)이라고 부른다. 사단의 칠정이란 칠정이 사단과 다르지 않다, 즉 사단과 마찬가지로 선하다는 말이다. 칠정과 사단이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성에서 발한 이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한 면우는 형기의 칠정(또는 칠정의 칠정)을 말한다. 물론 형기의 칠정 역시 이발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형기의 칠정은 기가 주가 되고 리가 끼인 바가 되어 리가 없는 것과 같으므로 점검하고 살펴서 마땅히 옳으면 선이 되나 방종하여 법도를 잃으면 악이 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형기의 칠정을 사단과 상대시켜 보면 사단=이발=純善, 칠정=기발=易惡의 구분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달도의 칠정이든 형기의 칠정이든 모두 성에서 발한 것이므로 이발이 되어야 하지만, 형기의 칠정은 기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칠정은 이발이면서 기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면우는 혼륜과 분개의 두 가지 인식방법을 동시에 강조한다.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발인 것은 혼륜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고, 사단/이발, 칠정/기발의 구분이 없을 수 없는 것은 분개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때문에 혼륜을 말하더라도 이발과 기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고, 분개를 말하더라도 근원이 모두 이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분개에 대한 강조는 또한 그의 심론에서 心卽理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면우도 만구처럼 심에서의 리의 주재를 강조한다. 그러나 만구가 혼륜(불상리) 속에서 리의 주재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면우는 분개(불상잡) 속에서 리의 주재를 강조한다. 분개 속에서 리의 주재를 강조할 경우 이선기후나 리의 동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만구는 이선기후나 리의 동정에 결사반대한다. 이처럼 만구가 혼륜의 관점에서 心合理氣를 주장하여 심에서의 기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달리, 면우는 분개의 관점에서 心卽理를 주장하여 심에서의 리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퇴계학파의 사단칠정론은 퇴계의 이론을 계승하지만 내용에서는 퇴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퇴계의 사단/이발, 칠정/기발과 달리, 사단과 칠정을 모두 이발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만구는 퇴계의 이론을 자신의 혼륜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사단/이발, 칠정/이발을 주장하였으며, 면우는 혼륜과 분개의 두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퇴계의 이론을 분개의 관점으로 제한하여 받아들였던 것이다. 특히 면우는 칠정을 달도의 칠정/이발과 형기의 칠정/기발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비록 칠정이 성에 근원할지라도 여전히 현실세계에서는 단속하고 제재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면우의 사단칠정론은 그 이론적 뼈대가 율곡의 혼륜적 사고를 견지하지만 내용에서는 결국 퇴계의 분개의 논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만구는 철저히 혼륜의 사고에서 사단과 칠정을 모두 이발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晩求集』, 『俛字集』, 『退溪全書』, 『栗谷全書』, 『高峯集』, 『聖學十圖』, 『聖學輯要』,  
『東儒學案』, 『孟子』, 『二程文集』, 『朱子語類』

이기동 외, 『증보 동유학안』, 나남, 2008

금장태, 『퇴계학과의 사상(Ⅰ)』, 집문당, 1996

민족과 사상연구회 편, 『사단칠정론』, 서광사, 1992

금장태, 『퇴계철학과 理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면우 곽종석의 학문과 사상』, 도서출판 숲이, 2010

임종진, 「만구 이종기의 삶과 사상적 특징」, 『남명학연구』31, 경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 2011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sadanchiljeonglon in Mangu and Myunwoo

An, yoo-kyoung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sadanchiljeonglon of Mangu(Lee Jong-ki, 1837~1902) and Myunwoo(Kwak Jong-seok, 1864~1919) who worked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it revealed the theore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According to the regional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oegye school in the 19th century, there's a separate phenomenon. One of its representative examples is the Jeongjae School, which centers on the Jungjae in the Andong area, and the Hanju School, which is located in the Sungju region. Mangu succeeded Jungjae, and Myunwoo succeeded Hanju.

Accordingly, the text tries to determine the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Mangu that succeeded Jungjae's studies and the Myunwoo that succeeded Hanju's studies of sadanchiljeonglon. Their theoretical difference is to see the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between the Jungjae school and the Hanju school, a representative Toegye School of the 19th century. Through this process, Toegye's sadanchiljeonglon how it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separate of Toegye school, it are trying check the pattern of th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major issue of the study at this time is the heated deba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xin'. Accordingly, we also look at the relation of their interpretations with the 'xin'.

**Key words**

Mangu(Lee Jong-ki), Myunwoo(Kwak Jong-seok), sadanchiljeonglon, ibal, kibal